

미국주부 무료 자료 · AI 업종 리포트 예시 · 2026년 10월 16일 기준

자영업 5개 업종, 몇 년 버틸까?

Small Business Survival · Korea vs US · Café · Chicken · Convenience Store · Hair Salon · Academy

미국주부 · Mompreneur Diary

한국 3년 생존율: 치킨 45.4% · 미용실 73.4%

- 1 프롬프트 ④ 하나로 업종 5개를 한국·미국 공식 통계로 비교한 리포트
- 2 몇 년 버티나 · 왜 문을 닫나 · 남는 돈 · 들어가기 전 확인할 곳
- 3 복사해서 쓰는 프롬프트 ④ 전문 + AI가 틀린 곳과 고친 방법

한국 신생기업 5년 생존율

36.4%

국가데이터처 · 2023년

미국 신생 사업장 5년 생존율

51.4%

노동통계국 · 2025년 3월

한국 2025년 폐업자

97만 5,681명

국세청

● 한국과 미국 숫자는 세는 기준이 달라요(한국 = 매출 있는 1인 사업자 포함 · 미국 = 직원이 있는 사업장만). 그대로 놓고 "한국이 더 못하다"고 비교할 수 없어요.

예시 조건: 대상 = 카페·치킨집·편의점·미용실·학원 · 상황 = 50대, 퇴직 후, 쓸 수 있는 돈 1억 원

만든 방법: Claude + 웹 검색. 핵심 숫자는 사람이 원문과 대조했어요. 법률·투자 조언이 아니에요.

이 리포트를 읽는 법

한 줄 요약

면허·기술이 있어야 하는 업종(미용실·학원)이 오래 버티고, 치킨집은 3년 생존율이 45.4%로 가장 낮았어요. 하지만 오래 버티는 것과 돈이 남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폐업한 분들 대부분은 매출이 40% 넘게 떨어진 뒤에야 결정했어요.

원문 대조

- 영상에 나온 숫자(생존율·폐업자 수·폐업 이유·차액가맹금·온라인몰 수수료)는 원문 표·기사를 직접 열어 맞춰 봤어요.
- 나머지 숫자도 출처 링크를 열어 대조했고, 틀린 곳은 고쳤어요. 고친 내역은 맨 뒤 「AI가 틀린 곳」에 있어요.
- 계산** = 출처 숫자로 계산한 값 · **판단** = 근거가 적어 의견에 가까운 부분 · **정부 통계 아님** = 협회·민간 설문

두 나라 숫자, 그대로 비교하면 안 되는 이유

항목	한국	미국
무엇을 세 나	매출이 있거나 상용근로자가 있는 기업 (혼자 하는 1인 사업자 포함)	직원을 처음 고용한 때를 "생긴 날"로 보는 사업장 (직원 있는 곳만)
업종 나누 기	커피음료점·치킨전문점처럼 세부 업종	숙박·음식, 소매처럼 큰 산업 단위
출처	국세청 · 국가데이터처	노동통계국(BLS) Business Employment Dynamics

"1년 폐업 수" — 처음 리포트가 섞어 쓴 숫자

처음 프롬프트로 돌렸을 때 AI는 「1년 폐업 수」를 한국은 그해 문 닫은 전체 수, 미국은 새로 연 사업장 중 1년 안에 닫은 수(계산)로 섞어 썼어요. 그래서 프롬프트 ④에 "1년 폐업 수는 그해 그 업종에서 문 닫은 가게 수"라는 규칙을 넣었어요. 이 PDF의 표에는 두 숫자가 무엇인지 같이 적어 두었어요.

1. 한 줄 결론

치킨집이 가장 위험합니다. 한국에서 3년 뒤까지 살아남는 비율이 45.4%입니다[1]. 미용실(73.4%), 학원(70.1%), 편의점(69.1%)은 더 오래 버팁니다[1]. 다만 소상공인 한 곳이 1년에 남기는 영업이익은 평균 2,500만 원입니다[10]. 2027년 최저임금으로 직원 1명을 쓰면 1년 인건비가 약 2,684만 원이라(계산)[13], **오래 버티는 것과 돈이 남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2. 한눈에 보는 숫자 표

한국 (생존율은 국세청 '사업자' 기준, 2023년 기준[1])

업종	사업체 수	1년 생존율	3년 생존율 (5년은 업종별 없음)	1년 폐업 수	평균 매출
카페	95,250곳 (2025.4)[2]	확인 필요	53.2%	확인 필요 (음식업 전체 142,557곳, 2025년[7])	확인 필요 (가맹점 평균매출 증가율 +8.3%만 있음[5])
치킨	39,789곳 (2023, 국가 데이터처)[4]	확인 필요	45.4%	가맹점 폐점률 12.0% (2024)[6]	가맹점 3.28억 (공정위)[6] / 2.80억 (국가데이터처)[4] — 기준 다름
편의점	53,133곳 (2025.4, 국세청)[2]	90.3%	69.1%	4개 회사 합계 순감 1,586곳 (2025)[12]	가맹점 약 5.2억 (계산: 매출 28.495조 ÷ 54,780곳, 2024)[4]
미용실	확인 필요	91.1%	73.4%	확인 필요	확인 필요 (이미용 가맹점 평균매출 -1.5%[5])
학원	확인 필요	확인 필요	70.1% (교습학원)	확인 필요	확인 필요 (교과교육 가맹점 평균매출 +31.8%[5])
(참고) 100대 생활업종 전체	3,086,969 (2025.4) [2]	77.9%	53.8% (5년 39.6%)	전체 폐업 975,681명 (2025)[7]	소상공인 평균 1.99억 (2023)[10]

미국 (생존율은 BLS의 '직원이 있는 사업장' 기준이고, 업종이 아니라 **더 넓은 산업 단위**[16])

업종	사업체 수	1년 생존율	5년 생존율	1년 폐업 수	평균 매출
카페 (스낵·무알코올 음료점, 아이스크림·도넛 가게 포함)	약 85,100곳 (2023)[17]	85.3% (숙박·음식 전체)	59.3% (숙박·음식 전체)	8,491곳 (계산: 신규 사업장 중 첫째 폐업, 숙박·음식 전체)	약 80만 3천 달러 (계산: 2023년 매출 683.6억 달러[19] ÷ 85,100곳)
치킨	미국 공식 분류 없음 (간이음식점 안에 섞여 있음)	85.3% (숙박·음식 전체)	59.3%	확인 필요	확인 필요
편의점 (주유소형 제외)	36,992곳 (2023, 2차 자료·미검증)[17]	84.4% (소매 전체)	59.8% (소매 전체)	8,957곳 (계산, 소매 전체)	확인 필요
미용실	직원 있는 곳 84,176곳 + 1인 사업자 838,264명 (2023)[18]	82.6% (기타 서비스 전체)	60.0% (기타 서비스 전체)	8,725곳 (계산, 기타서비스 전체)	약 32만 달러 (계산: 2023년 매출 269.7억 달러[19] ÷ 84,176곳)
학원 (시험대비·과외)	확인 필요	78.4% (교육 서비스 전체)	58.2% (교육 서비스 전체)	3,182곳 (계산, 교육서비스 전체)	확인 필요
(참고) 민간 전체	—	77.9%	51.4%	—	—

미국 1년 생존율은 2024년 출생 사업장을 2025년 3월에 본 값이고, 5년 생존율은 2020년 출생 사업장을 2025년 3월에 본 값입니다[16].

※ 「1년 폐업 수」 칸은 두 나라 기준이 달라요. 한국 칸은 그해 문 닫은 수(업종 전체·가맹점 자료가 섞임), 미국 칸은 새로 연 사업장 중 첫째 안에 닫은 수(계산)입니다. 두 숫자를 그대로 비교하지 마세요.

3. 최근 1~2년 사이 바뀐 것

나쁜 쪽

- **한국 폐업 수**
 - 2024년 폐업 신고가 100만 8,282명으로 처음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7].
 - 2025년은 97만 5,681명으로 3.2% 줄었지만, 새로 문 연 곳 대비 문 닫은 곳 비율이 83.5%로 12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7].
- **음식업**
 - 2025년 새로 문 연 음식점이 13.6% 줄었습니다[7].
 - 5년 넘게 영업한 음식점 41,659곳이 문을 닫아 2007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7].
- **카페**: 2025년 1분기 커피음료점 수가 1년 전보다 743곳 줄었습니다. 처음으로 줄어든 것입니다[3].
- **편의점**
 - 2025년 말 4개 회사 점포가 53,266곳으로 1,586곳 줄었습니다. 업계가 생긴 뒤 처음입니다[12].
 - 4개 회사 매출 증가율은 2023년 8.0%, 2024년 3.9%, 2025년 0.1%로 떨어졌습니다[12].
- **치킨**: 전체 점포 수가 2020년 42,743곳에서 2023년 39,789곳으로 3년 연속 줄었습니다. 반면 가맹점은 2024년 31,397곳으로 늘었습니다[4]. 개인 가게가 빠지고 가맹점이 그 자리를 채우는 흐름입니다.
- **학원**
 -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이 27.5조 원으로 5.7% 줄었습니다[14].
 - 학생 수는 502만 명으로 2.3% 줄었고, 초등 사교육비 총액은 7.9% 줄었습니다[14].
- **인건비**: 최저임금이 2026년 10,320원에서 2027년 10,700원으로 3.7% 오릅니다. 월 209시간 기준 223만 6,300원입니다[13].
- **미국 원두 가격**: 원두 소매가가 2024년 8월 1파운드당 6.311달러에서 2026년 9월 9.332달러로 올랐습니다(+47.9%, 계산)[20]. 브라질산 커피에 붙은 40% 관세는 2025년 11월 20일 행정명령으로 없어졌지만[21], 가격은 여전히 9달러대입니다[20].

좋은 쪽

- **한국 가맹점 평균 매출(2024년)**
 - 3.7억 원으로 4.3% 늘었습니다. 외식은 +6.1%, 커피 +8.3%, 치킨 +5.2%, 교과교육 +31.8%입니다[5].
 - 다만 같은 기간 외식 본부가 재료를 넘기며 붙이는 마진(차액가맹금)은 13.0% 늘었습니다[5]. 점주 매출보다 본부 몫이 더 빨리 늘었습니다.
- **학원 객단가**: 사교육을 받는 학생의 월평균 지출이 60만 4천 원으로 역대 최고입니다[14]. 학생 수는 줄어도 1인당 지출은 늘고 있습니다.
- **미국 매출(명목, 물가 반영 전)**
 - 카페(스낵·음료점): 2022년 627.7억 달러에서 2024년 734.1억 달러로 +16.9%(계산)[19]
 - 미용실: 256.6억 달러에서 274.8억 달러로 +7.1%(계산)[19]

4. 왜 문을 닫나

공식 통계에 나온 폐업 이유

- **국세청(2025년 폐업자)**: '사업부진'이 50.4%(491,966명)로 가장 많습니다[7]. 업종별 폐업률(그해 사업자 중 문 닫은 비율)은 소매업 15.40%, 음식업 15.14%로 전체 8.64%의 두 배 가까이 됩니다[8].
- **중기부(최근 1년 안에 폐업한 소상공인 1,500명)**[8]
 - 폐업 이유: 수익성 악화·매출 부진 70.9%
 - 64.4%는 매출이 40% 넘게 떨어진 뒤에야 문을 닫았습니다.

- 폐업 때 평균 빚: 8,531만 원 (60대 이상은 9,897만 원)
- 폐업 비용: 평균 1,286만 원. 그중 철거·원상복구가 559만 원
- **중기중앙회(노란우산 폐업공제금을 받은 820곳)[9]**
 - 수익성 악화의 원인: 손님 감소 52.2%, 인건비 상승 49.4%, 재료비 46.0%, 고정비 44.6%
 - 숙박·음식점은 배달앱 같은 플랫폼 수수료·광고비 부담이 35.6%로 평균 16.3%의 2배가 넘습니다.
- **2023년 소상공인실태조사(경영 애로):** 경쟁 심화 59.1%, 원재료비 42.1%, 상권 쇠퇴 36.7%, 보증금·월세 25.6%[10]. 주변에 같은 업종이 너무 많다고 답한 가게의 44.6%가 음식점·주점이었습니다[11].

업종 특유의 이유 (근거가 있는 것만)

- **치킨**
 - 3년 생존율 45.4%로 다섯 업종 중 가장 낮습니다[1].
 - 본부가 재료로 가져가는 마진(차액가맹금)이 가맹점당 4,100만 원으로 외식 업종 중 가장 큼니다[5].
 - 가맹점 폐점률은 12.0%입니다[6].
- **카페:** 점포 수가 처음 줄기 시작했습니다[3]. 미국에서는 원두 소매가가 2년 사이 약 48% 올랐습니다(계산)[20]. 한국 원두 수입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편의점:** 점포 수와 함께 구매 건수도 줄었습니다(2025년 12월 -0.7%)[12].
- **미용실:** 이·미용업은 월 영업이익 300만 원 미만인 곳이 67.7%로 다른 업종보다 많습니다. 정부 통계가 아니라 소상공인연합회 설문입니다[15].
- **학원:** 학생 수 감소와 사교육비 감소가 겹쳤습니다[14].

5. 남는 돈 구조

항목	소상공인 전체 (참고)	치킨 가맹점	카페 가맹점	편의점 가맹점	미용실·학원
평균 매출	1.99억 (2023)[10] / 세입자는 2.12억 (2024)[11]	3.28억[6] / 2.80억[4]	확인 필요	약 5.2억 (계산)[4]	확인 필요 (서비스업 가맹 평균 1.96억[5])
재료비	확인 필요	확인 필요	확인 필요	확인 필요	확인 필요
본부 재료 마진 (차액가맹금)	—	4,100만 (계산: 매출의 약 12.5%. 단 공정위는 매출 2억 이상 점포만 집계)[5]	2,600만[5]	도소매 평균 5,000만 (매출의 1.4%) [5]	서비스업 평균 900만 (매출의 1.2%) [5]
임대료	월 112만 = 연 1,344만 (계산: 매출의 약 6.3%)[11]	확인 필요	확인 필요	확인 필요	확인 필요
인건비	최저임금 직원 1명이면 연 약 2,684만 (계산: 223만 6,300원 × 12, 4대 보험 별도)[13]	가맹점당 종사자 2.1명[4]	가맹점당 약 4.0명 (계산) [4]	가맹점당 약 3.9명 (계산)[4]	확인 필요
남는 돈 (영업이익)	연 2,500만 (매출의 12.6%, 계산) [10] / 세입자는 4,800만[11]	확인 필요	확인 필요	확인 필요 (본부와 이익을 나누는 방식)	확인 필요

- 위 두 조사(실태조사 2,500만 원, 상가임대차 조사 4,800만 원)는 대상이 달라 직접 비교하면 안 됩니다.
- 업종별로 "실제 남는 돈"을 정부가 공개한 자료는 찾지 못했습니다. 브랜드마다 내는 **정보공개서**를 직접 봐야 합니다(9번 참고).
- **미국:** 미용실은 1년 급여 총액이 124억 달러(2023)[18]로 매출의 약 46%입니다(계산). 업종별 순이익은 미국 국세청(IRS) 통계표에 있지만 이번에는 열지 못했습니다(11번 참고).

6. 한국 vs 미국 같은 잣대 비교

항목	한국	미국	판정	무엇이 다른가
1년 생존율 (전체)	77.9%[1]	77.9%[16]	기준 다름	한국은 사업자등록 단위(1인 포함), 미국은 직원이 있는 사업장만. 숫자가 같은 건 우연입니다.
장기 생존율	3년 53.8%, 5년 39.6%[1]	5년 51.4%[16]	기준 다름	위와 같은 차이에 더해 시기도 다릅니다(한국 2019~2023년, 미국 2020→2025년).
업종 분류	'커피음료점', '치킨전문점'처럼 세부 업종	숙박·음식, 소매처럼 큰 산업 단위	기준 다름	미국 생존율은 카페·치킨만 따로 보는 숫자가 아닙니다.
사업체 수	국세청 사업자 수	직원 있는 사업장 수	기준 다름	미국 미용실은 1인 사업자 838,264명이 따로 있습니다[18].
평균 매출	가맹점 평균 (공정위·국가데이터처)	업종 전체 사업장	기준 다름	한국은 가맹점만, 미국은 개인 가게까지 포함합니다.
폐업 이유	정부 통계·조사 있음[7][8]	정부 통계에서 못 찾음	비교 불가	미국은 확인 필요
원재료 가격	확인 필요	원두 소매가 +47.9% [20]	비교 불가	한국 원두 수입가 확인 필요

7. 버티는 가게의 공통점 (근거 있는 것만)

1. **면허나 기술이 있어야 하는 업종이 오래 버팁니다.** 3년 생존율은 미용실 73.4%, 학원 70.1%인데 치킨은 45.4%입니다[1]. 단, 이것은 업종 사이의 차이이고, 기술 없는 사장이 미용실을 차려도 같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2. **첫해만 넘기면 생존 확률이 올라갑니다.** 미국 숙박·음식 사업장은 첫해 생존율이 85.3%지만, 5년 차에서 6년 차로 넘어갈 때는 92.1%가 살아남습니다[16].
3. **오래됐다고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2025년 한국 폐업자의 32.5%(317,406명)는 5년 이상 영업한 곳입니다[7].
4. **일찍 판단하는 쪽이 덜 잃습니다.** 폐업자의 64.4%는 매출이 40% 넘게 떨어진 뒤에야 닫았고, 평균 빚 8,531만 원을 안고 끝났습니다[8].
5. **직원이 있는 가게일수록 저소득 비중이 낮습니다.** 월 영업이익 300만 원 미만 비중이 직원 없는 가게 69.9%, 직원 1~2명 47.0%, 5명 이상 27.9%입니다[15]. 민간 설문이고, 원인인지 결과인지(장사가 잘돼서 직원을 둔 것일 수도 있음)는 구분되지 않습니다.

8. AI가 훨씬 좋아지면 이 업종은 강해지나 약해지나

이 부분은 근거가 적어서 대부분 판단입니다.

- **학원: 가장 약해집니다.** 미국 온라인 숙제 도움 서비스 체그(Chegg)는 2025년 1분기 구독자가 31% 줄어 320만 명이 됐고 직원 22%를 내보냈습니다. 회사는 연간 보고서에서 ChatGPT 같은 생성 AI를 원인으로 들었습니다[23]. 동네 학원과 직접 같은 업종은 아니라서 **간접 근거**입니다. 여기에 한국 학생 수가 줄고 있습니다(-2.3%)[14].
- **미용실: 가장 덜 흔들립니다.** 손으로 하는 일이라 AI가 대신하기 어렵습니다. 미국 노동통계국은 미용사 고용이 2025~2035년에 7% 늘어 평균보다 훨씬 빠를 것으로 봅니다[22].
- **편의점: 비슷하거나 약간 유리합니다.** 무인 운영이나 재고 예측으로 인건비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판단). 하지만 그 이득이 본부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 **카페·치킨: 중립에서 약간 불리합니다.** 키오스크나 AI 광고는 경쟁 가게도 똑같이 쓰기 때문에 차이를 만들기 어렵습니다(판단). 손님을 받는 길이 배달앱처럼 플랫폼에 묶여 있어 수수료 부담은 그대로입니다[9].

9. 그래도 들어간다면: 들어가기 전 확인할 것 5개

1. **상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365'(빅데이터 상권분석), 서울이라면 서울시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 반경 안의 같은 업종 점포 수, 문 열고 닫은 수, 추정 매출을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2. **정보공개서:**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사이트(franchise.ftc.go.kr). 브랜드별 평균 매출과 지역별 매출, 최근 3년 계약 해지·종료 수, 차액가맹금, 인테리어 비용을 확인합니다.
3. **동네 업종 증감:** 국제통계포털(TASIS) → 테마통계 → 통계로 보는 생활업종. 시군구별로 해당 업종 사업자 수가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 봅니다.
4. **임대 조건:** 권리금과 원상복구 조건을 계약 전에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폐업 비용 1,286만 원 중 철거·원상복구가 559만 원입니다[8].
5. **자격과 등록:** 미용실은 미용사 면허가 필요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구청 위생과). 학원은 교육청에 설립 등록을 해야 하고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학원법). **면허 없이 미용실을 열면 디자이너를 고용해야 해서 인건비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10. 그만둘 조건 (숫자로)

아래는 근거 숫자를 바탕으로 한 **제안**입니다.

1. 매출이 가장 좋았던 때보다 **30% 떨어지면** 정리를 준비합니다. 폐업자 64.4%는 40% 넘게 떨어진 뒤에야 닫았습니다[8].
2. 1억 원 밖의 **추가 매출이 3,000만 원에 이르면** 멈춥니다. 폐업 소상공인의 평균 빚이 8,531만 원입니다[8].
3. 내가 일한 시간으로 나눈 남는 돈이 **6개월 연속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그만둡니다(2026년 10,320원, 2027년 10,700원)[13].
4. 개업 전에 계산한 손익분기 매출(이익이 0이 되는 매출)보다 **3개월 연속 20% 이상 모자라면** 그만둡니다(판단).
5. 1억 원 중 따로 떼어 둔 운영 예비비가 **절반 넘게 바닥나면** 그만둡니다(판단). 폐업 비용 약 1,300만 원[8]은 끝까지 남겨 두어야 합니다.

11. 내가 직접 확인할 것 (웹 검색으로 못 찾은 것)

못 찾은 것	어디서 확인하나
카페·치킨·편의점·미용실·학원의 업종별 5년 생존율, 카페·학원 1년 생존율	국세통계포털(TASIS) 생활업종 생존율
미용실·학원 사업자 수 (2025년)	TASIS, 공공데이터포털 '학원·교습소 정보'
카페 가맹점 업종 평균 매출, 업종별 폐점률	공정위 '2025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 보도자료 PDF
업종별 재료비·인건비·영업이익 비율	브랜드별 정보공개서, 통계청(국가데이터처) KOSIS '서비스업조사'
한국 원두 수입가 추이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현재 배달앱 수수료율	배달의민족·쿠팡이츠 사장님 사이트 (2026년 상생안 요율은 기사마다 달라 확정 못 함)
미국 원래 표 (사업장 수, 업종별 순이익)	data.census.gov (County Business Patterns), IRS 'Nonfarm sole proprietorship statistics' 2022년 표
미국 치킨집 숫자	공식 분류가 없어 정부 통계로는 확인 불가

12. 점수표 (0~10)

위험도는 10이 가장 위험하고, 나머지는 10이 가장 좋습니다. 경쟁은 10이 "경쟁이 덜하다"는 뜻입니다.

항목	카페	치킨	편의점	미용실	학원
수요	5 — 가맹 매출 +8.3%지만 점포 수가 줄기 시작[3][5]	4 — 전체 점포 3년 연속 감소[4]	5 — 4개 회사 매출 증가율 0.1%[12]	6 — 미국 고용 +7% 전망, 한국 이 미용 가맹 매출 -1.5%[22][5]	4 — 학생 -2.3%, 사 교육비 -5.7%[14]
경쟁	2 — 9만 5천 곳[2]	2 — 가맹점은 계속 늘어남[4]	3 — 5만 3천 곳[12]	4 — 면허라는 진입장벽	4 — 등록 기준이라는 진입장벽
남는 돈	3 — 차액가맹금 2,600만[5]	3 — 차액가맹금 4,100만[5]	4 — 매출 5.2억(계산)이지만 본부와 나눔	4 — 67.7%가 월 300만 미만[15]	4 — 근거 부족
시작 쉬움	6 — 가맹 본부 지원	6 — 가맹 본부 지원	6 — 가맹 본부 지원	2 — 미용사 면허 필요	4 — 교육청 등록, 강사 확보
AI에 유리	5 — 경쟁 가게도 같은 도구를 씀	5 — 플랫폼 수수료 그 대로[9]	6 — 무인 운영 가능(판단)	7 — 손으로 하는 서비스[22]	3 — 체크 구독자 -31%[23]
위험도	7 — 3년 생존율 53.2%[1]	8 — 3년 생존율 45.4%로 가장 낮음[1]	6 — 점포 수 처음 감소[12]	4 — 3년 73.4%, 면허 없으면 8[1]	6 — 3년 70.1%지만 수요 감소[1][14]
근거 확신도	5 — 업종 평균 매출 없음	6 — 공정위·국가데이 터처 둘 다 있음	6 — 산업부·국가데이 터처	4 — 한국 사업자 수·매출 없음	4 — 한국 사업자 수·매출 없음

13. 출처 목록

같은 통계를 옮긴 기사 여러 개는 번호 하나(증거 1개)로 묶었습니다.

1. **국세청 100대 생활업종 생존율** (2025.4.29 공개, 2019~2023년 분석, 2023년 기준) — [한국세정신문](#), [세계일보](#), [한국경제](#) — 업종별 1년·3년 생존율, 전체 5년 39.6%
2. **국세청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현황** (2025년 4월 기준, 2025.6.6 보도) — [한국세정신문](#) — 카페 95,250, 편의점 53,133, 전체 3,086,969
3. **국세청 국세통계포털 커피음료점 수** (2025년 1분기, 2025.5.26 보도) — [뉴시스](#) — 95,337곳, 1년 전보다 743곳 감소
4. **국가데이터처 프랜차이즈(가맹점) 조사** (2024년 기준 잠정, 2025.12.24 발표) 및 치킨전문점 수 (2023년) — [뉴시스](#), [SBS Biz 2025.12.28](#) — 편의점 매출·점포 수·종사자, 치킨 가맹점당 2.80억, 치킨 전체 39,789곳
5. **공정위 2025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 (2026.4.13 발표, 가맹점 수·매출은 2024년 말 기준) — [공정위](#), [뉴시스](#), [서울신문](#) — 업종별 매출 증가율, 차액가맹금
6. **공정위 가맹사업 현황 통계의 치킨 수치** (2024년 기준, 2026.5.18 보도) — [디지털데일리](#) — 치킨 평균매출 3.28억, 폐점률 12.0%
7. **국세청 2025년 폐업·창업 통계** (2026.7.6 공개) — [파이낸셜뉴스\(연합뉴스 인용\)](#) — 폐업 975,681명, 사업부진 50.4%, 음식업 폐업, 2024년 100만 8,282명
8. **중소벤처기업부 폐업 사업자 및 폐업 소상공인 현황** (2026.6.30 발표) — [아시아경제](#), [시대일보](#) — 업종별 폐업률, 폐업 이유 70.9%, 평균 빚 8,531만, 폐업 비용 1,286만, 64.4%
9. **중기중앙회 2025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 (2025.3.19 발표, 노란우산 수령 820곳) — [뉴데일리](#), [다음뉴스](#) — 폐업 이유와 원인, 플랫폼 수수료 35.6%
10.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소상공인실태조사 잠정결과** (2025.2.27 발표) — [벤처스퀘어](#) — 매출 1.99억, 영업이익 2,500만, 경영 애로
11. **중기부·소진공 2025 상가건물임대차 실태조사** (경영 수치는 2024년 기준, 2026년 5월 보도) — [한경비즈니스](#) — 세입자 매출 2.12억, 영업이익 4,800만, 월세 112만
12. **산업통상자원부 유통업체 매출동향** (2025년 말 기준, 2026.2.4 보도) — [아시아경제](#) — 편의점 53,266곳, 1,586곳 감소, 매출 증가율
13. **최저임금위원회 2027년 최저임금** (2026.7.14 의결) — [다음뉴스](#) — 10,700원, 월 223만 6,300원
14. **교육부·국가데이터처 2025년 초·고교 사교육비조사** (2026.3.12 발표) — [한국경제](#), [뉴시스](#) — 27.5조(-5.7%), 학생 502만, 1인당 60.4만
15. **소상공인연합회 2026 신년 경영실태조사** (2026.1.13 발표, 1,073명, 정부 통계 아닌 민간 단체 설문) — [뉴시스](#) — 월 영업이익 분포, 이미용 67.7%
16. **미국 노동통계국(BLS) 사업장 생존율 Table 7** (2025년 3월까지 자료, 발표일 미상) — [전체](#), [숙박·음식](#), [소매](#), [기타서비스](#), [교육](#), [목록](#) — 미국 1년·5년 생존율, 첫째 폐업 계산 근거
17. **미국 인구조사국 County Business Patterns 2023** (2025.6.26 발표; 숫자는 2차 사이트 경유) — [인구조사국 발표](#), [Vantalnsights 카페](#), [Vantalnsights 편의점\(미검증\)](#) — 카페 85.1K곳, 편의점 36,992곳
18. **미국 인구조사국 CBP 2023 + 1인 사업자 통계 2023** (2차 사이트 경유) — [startbusinessbystate](#) — 미용실 84,176곳, 1인 838,264명, 급여 124억 달러
19. **미국 인구조사국 연간 통합경제조사(AIES) 매출** (2022~2024년, FRED 경유) — [카페\(스낵·음료점\)](#), [미용실](#) — 업종 매출과 평균 매출 계산
20. **미국 노동통계국 커피 평균 소매가** (2026년 9월이 최신, FRED 경유) — [FRED APU0000717311](#) — 6.311달러에서 9.332달러
21. **미국 백악관 행정명령 '브라질 관세 범위 수정'** (2025.11.20 서명, 11.13 입고분부터 소급; 업계지 경유) — [World Coffee Portal](#) — 브라질 커피 40% 관세 철회
22. **미국 노동통계국 직업전망 핸드북(OOH)** (2025~2035년 전망, 2026.8.27 갱신) — [BLS OOH](#) — 미용사 고용 +7%
23. **체그(Chegg) 2025 회계연도 연간 보고서(SEC 공시)와 2025년 1분기 보도** — [SEC 10-K](#), [Maginative](#) — 구독자 -31%, 인력 22% 감축, 원인으로 AI 명시

처음 리포트에서 고친 것

처음 프롬프트로 뽑은 리포트를 원문과 하나씩 대조해서 아래를 고쳤어요. 이 경험으로 프롬프트 ④의 규칙을 다듬었어요.

무엇이 문제였나	어떻게 고쳤나
「1년 폐업 수」를 두 기준으로 섞어 씀 — 한국은 그해 문 닫은 전체 수, 미국은 새로 연 사업장 중 1년 안에 닫은 수(계산)	표 아래에 두 기준을 적었고, 프롬프트 ④ 규칙 6번에 "1년 폐업 수 = 그해 그 업종에서 문 닫은 가게 수"를 넣었어요
미국 미용사 고용 전망 "2024~2034년 +5%"	노동통계국 페이지가 2026년 8월 27일 새 판으로 바뀌어 2025~2035년 +7% 로 고쳤어요
"같은 업종이 너무 많다는 답은 음식점·주점이 44.6%"	그렇게 답한 가게 중 음식점·주점이 44.6%라는 뜻이라 문장을 고쳤어요
"초등 사교육비 7.9% 감소"	1인당이 아니라 총액 기준이라 "총액"을 붙였어요
출처 날짜 2곳(기사 날짜 미상, 공정위 발표일)	실제 날짜(2025.6.6 보도, 2026.4.13 발표)로 고쳤어요
브라질 커피 관세 출처가 열리지 않음	같은 내용을 전한 열리는 기사로 바꿨어요

원문 대조로 확인한 것: 국세청 업종별 1·3년 생존율, 폐업자 수와 폐업 사유, 국가데이터처 5년 생존율(표21), 노동통계국 사업장 생존율 표(전체·숙박음식·소매·기타서비스·교육), 중기부 폐업 소상공인 조사, 공정위 차액가맹금, 중기중앙회 온라인물수수료, 계산값(첫해 폐업 수·평균 매출·증가율·인건비) 모두 다시 계산해 맞췄어요.

그래도 남는 한계

- 한국 공식 통계는 일반 웹 검색으로 원문이 안 열리는 경우가 많아, 상당수는 그 통계를 옮긴 기사를 거쳐 인용했어요(출처마다 원래 통계 이름을 적었어요).
- 치킨집은 미국 공식 업종 분류에 없어서 같은 잣대로 비교할 수 없어요.
- 평균 매출은 한국은 가맹점 자료뿐이라 개인 가게까지 포함한 미국 숫자와 비교하면 안 돼요.

업종 리포트 프롬프트 — 복사해서 쓰세요

클로드에서 웹 검색이 켜져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통째로 붙여 넣은 뒤 맨 위 [내 정보]만 바꾸세요. 10분 정도 걸려요. 페이지 주소: mikumikububu.com/ai-business-report.html

[내 정보] ← 이 부분만 내 것으로 바꾸세요

업종: 카페 (커피전문점) ← 한 개만 써도 되고, "카페, 치킨집, 편의점"처럼 여러 개를 써도 돼

비교할 나라: 한국, 미국

내가 팔(일할) 나라: 한국

내 상황(있으면): 창업 고민 중 · 쓸 수 있는 돈 5천만 원 · 경험 없음

[부탁]

이 업종이 얼마나 버티는지, 왜 문을 닫는지, 남는 돈은 얼마인지 리포트로 정리해 줘. 응원하지 말고, 안 되는 이유부터 찾아 줘. 웹 검색을 꼭 써.

[지킬 것]

- 숫자는 정부·공공기관 통계를 먼저 써. 한국은 국세청·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미국은 노동통계국(BLS)·인구조사국(Census)·중소기업청(SBA). 원문이 안 열리면 그 통계를 옮긴 기사를 쓰되 원래 통계 이름과 "원문 못 열림"을 같이 적어.
- 모든 숫자에 출처 번호를 붙이고, 맨 끝 출처 목록에 링크와 날짜(통계 기준 연도 포함)를 적어. 날짜를 못 찾으면 "날짜 미상".
- 출처 없는 숫자는 "추정", 출처 있는 숫자로 계산한 값은 "계산"이라고 표시해. 지어내지 마.
- 두 나라를 비교할 때는 같은 잣대인지 먼저 확인해. 기준(사업자 수인지 사업장 수인지, 몇 년 생존인지, 업종을 어떻게 나눴는지)이 다르면 표에 "기준 다름"이라고 쓰고 무엇이 다른지 한 줄 적어.
- 근거가 그 업종에 직접 해당하는지, 더 넓은 업종(예: 음식점 전체) 숫자인지 구분해서 써. 그 나라 통계에 딱 맞는 업종 분류가 없으면 가장 가까운 분류를 쓰고 무엇이 섞였는지 적어. 아예 없으면 "공식 분류 없음".
- 평균 매출은 가맹점 평균인지 업종 전체 평균인지 적어. "1년 폐업 수"는 그해 그 업종에서 문 닫은 가게 수야(새로 연 가게 중 1년 안에 닫은 수밖에 없으면 그렇다고 적어).
- 1번 결론은 출처 있는 숫자로만 내. 추정만으로 결론 내지 마.
- 같은 소식을 여러 기사가 반복하면 증거 1개로 세. 어려운 용어는 처음 나올 때 괄호로 쉬운 말을 붙여.
- 업종이 여러 개면 표와 점수표를 업종별 칸으로 나누고, 내 상황 기준으로 위험한 순서를 한 줄로 적어(추천은 하지 마).
- 같은 말 반복 금지, 숫자 없는 칭찬 금지. 한국어로 써.

[이 순서로 써 줘]

- 한 줄 결론 (숫자 포함)
- 한눈에 보는 숫자 표: 나라별 사업체 수 · 1년/5년 생존율 · 1년 폐업 수 · 평균 매출 (없으면 "확인 필요")
- 최근 1~2년 사이 바뀐 것 (좋은 쪽·나쁜 쪽)
- 왜 문을 닫나: 공식 통계에 나온 폐업 이유 + 업종 특유의 이유 (근거 있는 것만)
- 남는 돈 구조: 평균 매출 · 주요 비용(재료·임대료·인건비·가맹금 등) · 남는 돈. 공식 자료(정보공개서, 실태조사 등) 우선. 표로
- 한국 vs 미국 같은 잣대 비교 표 + 다른 점 한 줄씩
- 버티는 가게의 공통점 (근거 있는 것만)
- AI가 훨씬 좋아지면 이 업종은 강해지나 약해지나, 왜
- 그래도 들어간다면: 들어가기 전 확인할 것 5개 (어디서 무료로 확인하나 — 예: 상권분석 서비스, 정보공개서)
- 그만둘 조건 3~5개 (숫자로)
- 내가 직접 확인할 것 (웹 검색으로 못 찾은 것) + 어디서 확인하나
- 점수표 0~10 (이유 한 줄씩): 수요 · 경쟁(10 = 경쟁이 덜함) · 남는 돈 · 시작 쉬움 · AI에 유리 · 위험도(10 = 매우 위험) · 근거 확신도. 정부 통계가 아닌 설문(협회·민간 단체)은 "정부 통계 아님"이라고 표시해
- 출처 목록 (번호 · 링크 · 날짜 · 무엇을 뒷받침하는지)